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1문) :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유익

안태환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사도신경의 세 가지 시제

- ① 과거 -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과거시제
 - ② 현재 -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은 현재 시제
 - ③ 미래 -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은 미래 시제
- ※ 예수님께서 현재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의 유익이 무엇이 아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2. 현실의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중요성

- ① 잘못된 오해 - “앉아 계시다가 ... 심판하러 오시리라”
⇒ 심판이 강조되면서 이 땅의 삶이 심판을 기다리는 정도로의 시간으로 이해된다.
무의미한 과도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 ② 올바른 이해 - 현재의 시간(삶)은 그저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무작정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
≠ 이땅에서의 삶은 그저 심판의 때를 위한 무의미한 과도기가 아니다.

3.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 ① 교회머리 되신 예수님
우편에 앉으심 - 하나님의 동등한 분으로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침내 왕이 즉위를 하듯 대관식을 통해서
1)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2)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신다.
엡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 ② 주님의 몸된 교회
⇒ 엡1:23a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교회의 머리=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신다.
만물을 다스리실 때, 막연한 통치자가 아니라 1) 교회의 머리로서 2)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 마28:18-20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위해 일하시는 증거 /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4.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시는 일

- 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행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요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신 일은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주시는 일이다(행1:4).
1)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2)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셨다. ⇔ 창11 바벨탑 사건 (바벨 = ‘혼돈’이란 뜻)
⇒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것을 하나로 회복시키심
⇒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 / 교회의 모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심.

5.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오르셔서 우리가 얻는 유익

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속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다.

1)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

J. Calvin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이다.” (Inst., III, 1:1)

벧전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행5: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2) 성령의 은사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요16:13-14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복음서의 제자들 -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함(요11:11-13).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 -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행4:13).

사도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심 -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말씀을 주심

3)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엡4: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고전12:4-7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②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

1)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심

요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심

롬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계7: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